

연증 제 2 주일

기도서 P. 329 A해

- 제1독서(이 사 49, 3. 5-6)
- 제2독서(고린전 1, 1-3)
- 복 음(요 한 1, 29-34)

# 숲정이

발행인 김 환 철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강론



## 맑은 지력 주소서

박 종 상 신부

믿음을 지니고 산다는 우리들이지만, 태어남과 끝남을 갖는 처지라서 가끔 한계를 느낀다. 그러기에 흔들리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기도 한다는 것인가? <마르코 복음 15장 66절 이하의 베드로의 배반 및 뒤우침 참조>

적은 이익을 탐하다가 더 큰 것을 잃는다는 성령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커녕 자기 만족이나 아집에 빠져 허우적 거림은 웬 일이며, 뜻대없이 우왕좌왕 하는 것은 어찌할까? 그러기에 우리는 “맑은 지력 주소서” 하고 항시 구한다. 말 못할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때 간절히 구한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증언이다. 그러나 그 전에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안 세례자 요한에게도 그 깨달음이 자기 노력으로 얻은 지식이 아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가셨고<29절>, 그로 말미암아 깨달은 세례자 요한은 다른이에게 증언한 것이다. 사실 신앙은 이런 범주를 벗어나서는 있을 수 없다. 하느님의 가르침 내지는 선택(제2독서 참조)이 없고는 암담하고 얽다란 지식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을 것이다. 깨달음의 주도권은 항시 하느님 편에 있다. 듣고, 보고, 만짐으로 확신을 갖는 우리들에게 그래주셨으면 하나 알려지지 않고, 철학적 논리나 사고로서도 아니, 인간의 풍부한 상상력으로도 그려내지 못하는 하느님께서 먼저 드러내셔야 비로써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참조)

이와 반해 인간의 지혜나, 힘만으로써 아니면 권력이나 재물으로써 하느님을 찾으려 할 때에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한다.

또한 그 깨달음으로 인한 증언 역시 힘이 없을 것이고 호언은 허공에 뿜뿜이요 평화가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으나 불안, 초조, 내지는 혼란만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은 구한다. 세례자 요한과 같이 “이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라고 겸손되이 읊조리어 “맑은 지력 주소서”라고 항시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구합니다. 그리고 깨달거든 큰 소리로 외치기로 합시다.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종교감)



## 개꿈은 그만

—꽃불을 훑치지 말라!

인간의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그것이 비록 당시에는 허황된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나은 내일을 추구하는 우리의 꿈은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 인간의 위대한 힘이 샘솟는 원동력이 바로 꿈이다. 이러한 꿈을 키우면서 어린이는 성장하고, 어른들 또한 꿈을 가지도록 어린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어떠한 꿈인가에 있는 것이다. 미친 개 히틀러의 꿈을 갖어서는 안된다. 어린이들의 만화나 연속 드라마의 주인공인, 망상에 빠져 있는 과학자나 파란해골 13호의 꿈을 지녀서도 안된다. 육신의 오관만을 만족시키기에 급급한 꿈이어서도 안된다. 보다 높은 차원의 꿈을 지녀야 한다.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유익한 꿈, 더 나아가서는 나를 불사르더라도 이웃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꿈을 꾸어야 한다.

가까운 시일내에 대통령을 뽑는다고 한다. 흔히들 돈이나 권력, 명예나 성(性)을 저속하게 생각하여, 짧 짧은 사람은 너무나 가까이 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 좋은 것이다. 욕심이 지나쳐 광(狂)적인 상태에 빠지거나, 그걸 위해서 남을 짓밟을 때가 문제인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으면 된다.

우리 역사에는 애국자들이 갑자기 난무하는 때가 있다. 선거철이 바로 그 때이다. 때를 만난 철새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애국심(?)을 발휘한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성경을 읽는다는 구실로 꽃불을 훑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스스로가 그러한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있으니 주인인 국민들이 그들을 가려내야 한다.

## 숲정이 산책

예수님의 가르침





# 「자비로우신 하느님」 ②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지난 12월 2일에 발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자비로우신 하느님」(Divina Misericordia)의 요약을 지난주에 이어서 그 두번째로 실은다.

### ◇ 대대로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교회의 사명

현대 세계의 이러한 실상은 너무 열악(劣惡)한 갈등과 긴장에 휘말려들고 있습니다. 불우하고 억압받는 사람들만 아니라 권력과 부의 축적을 누리는 사람들도 이런 곤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바로 인간 실존의 의미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직결되고 있고 이런 곤경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이 지금 인류에게 중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세계 여러 곳곳에서 정의에 대한 의식이 새롭게 일깨워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곧 세계를 휩쓸고 있는 긴장과 투쟁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이런 심오한 열망에 교회도 동참하고 있으며 정의의 추구는 교회의 사회교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정의는 최대의 불의”라는 격언을 만들어낼 정도로 정의의 본질과는 판판인 여러가지의 모순이 소위 정의라는 미명아래 잔인한 복수와 부정적인 힘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가로막는 선의 결핍과 회개가 결여된 이 세계속에서 교회는 회개를 선포하고 구세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의 자비를 증거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인간생활의 전영역을 뒤덮고 있는 모든 위협 앞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촉구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만이 인간의 분열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정신으로 스스로 그 내부에서 변화하는 그만큼, 그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자비는 진정 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완전한 인간 평등의 구현이며 또한 가장 완전한 정의의 구현입니다.

정의의 근본 구조는 언제나 자비안에 있고 자비는 정의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하며 완전한 용서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의 이 순간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이 다시 한 번 드러나기를 소망하여 기도합니다.

(요약 끝)

### 교회상식 ①

## 미사의 의의

미사는 “보네타”(Mifrele)라는 말에서 나왔으며, 즉 옛날 사제가 제사를 바치고 난 다음에 「예식이 끝났으니 돌아가십시오」한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미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시켜준 구약의 빠스카의 완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예배와 봉헌이다. 또한 미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우리의 빠스카며, 그리스도의 빠스카를 새롭게 하고 하느님과 그 백성 사이의 계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사로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빠스카를 맛보는 것이며, 성체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이며, 생명이며, 이 세상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미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존경과 영광을 성부께 바치는 감사의 제사라 잔치다. 또한 우리를 피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성화와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시키는 예배이며,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 봉헌의 재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제적인 행위가 전체적 형태로 나타나는 현실적 반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 공경의 4가지 뜻이 있다.

- ① 하느님의 절대성을 최대한으로 받들고,
- ② 하느님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 ③ 하느님께 잘못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 ④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함이다.

(김기수 신부)

## 도내, 내무 공무원 신자들 모임

3년전 전주시청 산하 공무원중 신자와 또는 가톨릭을 알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인 로사리오회가 발족하여 운영되어 오다 도청과 완주 군청으로 번져, 이번에는 도내 전 공무원의 모임을 준비한다고 한다.

일선 행정의 담당자로서 뜻하지 않는 여러 고충속에서도 신자임을 기쁘게 생각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직장내에서의 건전한 종교활동과 신앙생활을 토의하고 상호 업무상의 유대와 친목강화를 위해 이 모임을 계속 갖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 기대는 자못크다.

모든 모임이 그러하듯이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의식과 책임감 용기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업무에 쫓기는 일선 공무원들의 모임인 만큼 그들의 기쁨과 보람과 은총은 더욱 클것으로 기대된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도청 로사리오 회원들은 도내 내무 공무원중 신자는 물론이고 가톨릭을 알고자 하는 비신자분까지도 대환영하며 특히 여러 어려운 사정에 의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던 분들의 참석을 간곡히 바라고 있는데, 그들의 앞날과 하는 모든 모임마다 천주님의 섭리가 깃들고 또한 뜨거운 은총과 발전을 빈다.

모임일시...1월 25일 10시, 전주 중앙 천주교회

교형 친지 여러 어른께 드립니다.  
 금번 제 부친 상중에 흑한도 가리지 않고 기도와 물질양면으로 도와주시어 무사히 장례를 마쳤습니다. 찾아가 뵈옵고 말씀드려야 옳은 줄 아오나 먼저 지면으로 가름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서노송동 690~3 서 정 태 울림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아동복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 교구 교육, 회의 소식

「전교의 해」 사목지침에 따라 이웃 선교를 위한 각종 지도자 교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다. 지난 1월 6일부터 제 4차 여성 꾸르실료(32명)에 이어, 11일에는 J, O, C 임원 연수회가 있었고, 12일부터 제14차 남성 꾸르실료(44명)가 성공리에 끝났고, 17일에는 성심·해성 양학교 교직원 연수회를 가진 바 있다.

금주간 교육일정은 이제 19일부터 제10차 여성 꾸르실료가 시작되고 23~24일에는 각 본당 회장단 연수회의 첫번으로 「사도회장단 선교 세미나」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사도 회장단 연수회에 이어 본 교구 평협의 정기총회가 개최됨으로써 선교의 해에 대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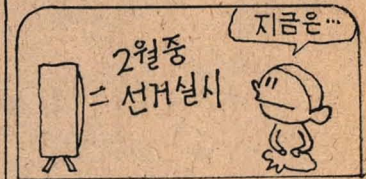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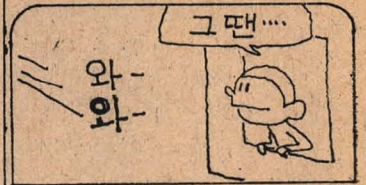
① 농촌과 도시 교회의 형제애 증진 방안, ② 청소년 선도 사업, ③ 성지개발 사업, ④ 평협회관 건립추진, ⑤ 조직사도직 활성화를 위한 방문 사도직 수행 등에 대한 81년도 교구 평협의 구체적인 활동과 평협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평협 정기총회의 성공을 빌며, 특히 교구단위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 「감사합니다」

순정이 주부 419호에 소개되어 도움이 절실했던 허 목사씨를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전주교구 인성회)

인성회·제민당 한의원(한약 무료 제공), 전주토용센터 오예환(토용 무료제공), 전주전매지청 성화회 일동(5만원), 남원신협 김주홍 이사장의 임직원 일동(5만원), 파티마신협 이교성 이사장의 임직원 일동(3만원), 장계 무궁화신협 이환구 이사장의 임직원 일동(1만원), 전주교구 관리국장 김용배 신부(1만원), 부안 레지오 마리아 군단(3만원), 성심여고 김수녀(1만원), 봉천출판사 사장 김정생(1만원), 도덕재무장 전복대표 조태형(1만원), 청소년협의회 사무국장 김익완(5천원), 복지성당(3만원), 전동성당 방지거 3회(1만원), 전주시 서학동 박장춘(2만원), 이리시 창인동 김경식(1만원), 남원 최순이(1만원·칩구 1점), 염내과의원 원장 영광섭(1만원), 전주시 교동 최요안(1만원), 전주성모병원 직원 일동(분유 10통), 고산본당 교우 익명(3천원), 전주시 서학동 한글라라(1천원), 익산군 합라면 이수옥(5천원), 논산군 연무대 박영숙(1만원), 정음본당 유금희(1만원), 한동성(2천 5백원), 유골롬바(5천 5백원), 김분다(1만원), 전동본당 범창규(1만원), 김태환(5천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 요십이 (389) 김병오



□생화·각종 화분·신부 부케 전문  
※ 교우여러분께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덕배)·이 마리아

격조높은 분위기



아늑한

Restaurant

大 闕 대월 예약전화 ⑤5011

전신전화국앞 임금님다방 2층

도자기. 합죽선. 화문석. 필방. 특산물 일절

※ 교우님들 자주 들려 주세요.

백 제 공 예

주 이 협 수(설비아)

전화 2-3908

(전주 우체국 앞, 풍남백화점 내)

□신장 개업 안내

금·은·보석·시계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④4988

건축용페인트, 기와용락카, 카-슈칠, 호마이카, 락카, 접착제, 청단 안료, 왁스, 금분, 은분, 가구재료 도장공사 청부(상담)

현대 페인트사

청자표 현대페인트(주)

전 주 직 매 점

주 오영원(바오로)·김영환(아오스딩)

전동 2가69(성모병원앞) ②2377번

## 「토 용 탕」

보신 보양 고단위 영양식품

각종 난치병에 효과가 좋음

※ 토용을 양식하고자 하는 분에게 「안내서」를 드리겠습니다.

무공해(無公害) 식품을 생산하는데, 세계 각국에서도 지렁이 농법(農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담을 바랍니다.

—연락처—

군산 토용센터(한일은행 뒤)

전화 ② 1636

전주 전동 대건 다방

(대건신용조합 지하)

전화 ② 9740

유 석 중(스테파노)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꾸르실로 성공을 위한 참석과 많은 빨랑까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계속 부탁드립니다  
남성 제15차 개회식(19일 <월> 오후 6시), 마냐니따(22일 <목> 4시 30분), 폐회식(22일 <목> 6시 30분)  
여성 제10차 개회식(26일 <월> 오후 6시), 마냐니따(29일 <목> 4시 30분), 폐회식(29일 <목> 6시 30분)
2. 사도회장단 연수회...23일(금) 오후 1시 접수~24일(토), 가톨릭 센터에서  
회비-전주 시내(6,000), 군산·이리(5,500), 순창·원평(3,500원), 무주·장계·창수·한들(4,000),  
기타본당(5,000)
3. 교구 평협 정기총회...24일(토) 오후 2시, 사도회장단 연수회 후, 가톨릭 센터에서
4. 그레고리오 합창단 모임...24일(토) 오후 4시, 중앙성당에서  
※ 단원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5. 중·고학생 동계목상회...1월 24일(토) 오후 2시~25일(일), 가톨릭 센터에서  
대상-교구내 중·고생(현 회장단 필히 참석 사람),  
참가비-4천원, 지참물-성경책, 성가집, 필기도구, 목주, 세면도구
6. 파티마의 모후 피미시움...1월 18일 오후 2시, 전동성당에서  
관부 및 각구리아 연락담당자는 오후 1시까지 필히 참석 바람  
 교도소를 위한 성금...승운회(문율동) 2만원  
 문학강좌 안내...24일(토)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주제-현대 비평의 방향, 강사-김교선(전북대 교수)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문정희  
3874 보좌 신부 정복성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김병구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강담
  2. 착한 사마리아인회: 21일 오후 7시
  3. 중학생회 정기총회: 18일, 학생미사 후 강담
  4. 특별강연: 18일 저녁미사 후
  5. 예비자교리 시작: 오늘부터  
노인반: 화-오전 10시~11시, 수-오전 10시~11시  
성인반: 남자-주일 오전 11시30분~12시30분  
목-오후 8시~9시  
여자-주일 오전 11시30분~12시30분  
목-오전 10시~11시, 오후 8시~9시  
학생반: 주일 오전 10시~11시, 토 오후 6시~7시
  6. 연탄분할: 불우 이웃돕기 연탄현금 구정까지 합니다
  7. 교무금 자진신입자: 신입해야 할 세대수-1,222세대
- 지난주 봉헌금: 396,436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박준근

1. 제13차 성령세미나: 내일부터 24일까지  
매일 오후 2시~4시까지(접수-19일 오후 1시부터)
  2. 베소라 성서강의: 매주(화) 저녁 7시 30분~9시30분
  3. 은혜의 밤: 1월 30일(금)
  4. 사도회 윌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성서의 밤: 오늘 저녁미사 후
  6. 형제회 윌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7. 어머니 미사일정 변경: 20일부터 매주(화) 오전11시
  8.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249,995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양정오  
사도 회장 조상열

1. 구역미사에 빠졌던 분은 사무실에 접수 바람
  2. 주일 공식미사 변경: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3. 주일미사에 성경책·성가집은 꼭 가지고 나오세요
  4. 미사전 자리는 계층별로 앉으시고 대화 강조합니다
  5. 신자 배가운동에 앞장서 1인 1선  
1/10조 봉헌정신 함양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을...
  6. 81년 성가대 육성: 어머니, 젊은이, 학생 성가대
  7. 80년도 교무금 미수금 속히 납부합니다
  8. 오늘은 애령주일: 특별헌금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285,950원 80년미수금: 40,00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범영배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윌레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제15대 학생회장단: 회장-김정무  
부회장-양제덕·최승경
3. 중·고생 등반대회: 1월21일(수) 오전 8시까지 집결  
장소-대둔산, 참가비-1,500원, 도시락 지참
4. 외인을 천주교로 인도하는 서약서 속히 납부 바람
5.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허데테사씨 지도  
매주(화) 저녁미사 후-범신부님 지도

6. 청년회 성가연습: 매주 공식미사 후·매주(수) 저녁 7시 30분, 장동주 선생 지도
  7. 어머니 성가대 성가연습: 매주(목) 오후 3시  
-김동준 신부 지도
- 지난주 봉헌금: 303,99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철수

1. 할머니회: 공식미사 후
  2. 중·고학생회: 정기총회-일요일 오전 11시(강담)
  3. 주일학교 6학년 졸업식: 17일(토) 오후 2시  
중학 진학을 축하합니다
  4. 사도회장단 연수회: 23일~24일까지 (가톨릭센터)
  5. 꾸르실로 교육 이수: 4명(남 2, 여 2)  
19일부터 여성 10차에 3명 참석(기도 부탁드립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 김낙균 ② 박형식, 신자들의 기도-김한기
- 지난주 봉헌금: 162,745원 교무금: 97,6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중·고등학교 피정에 수고해 주신 신부님·수녀님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2. 성모회 윌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청년회 성가연습: 매주(토) 오후 7시 30분
  4. 80년도 교무금 미납금을 빠른 시일내에 내주세요
  5. 다음주 전례담당: 해철-이기호  
독서-① 이기철 ② 김경주, 기도-박해근
- 지난주 봉헌금: 263,80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이종두

1. 80년도 교무금 미납하신분 속히 납부합니다
  2. 81년도 교무금 신입: 사도회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3. 중·고학생 등반대회: 1월 21일(수) 도막산으로
  4. 예비자교리: 2월 8일까지 반학
  5. 성화회: 오늘 공식미사 후
  6. 피미시움: 오늘 오후 2시
  7. 다음주 전례담당(25일)  
아침미사: 사회-양현홍, 독서-① 최병래 ② 박중구  
공식미사: 사회-이영자, 독서-① 김병오 ② 박순기  
저녁미사: 사회-경양수, 독서-① 이진홍 ③ 임순만
- 지난주 봉헌금: 415,470원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사도회장단 연수회: 23일, 24일 많은 기도 바랍니다
  2. 다음주일은 구라주일: 나환자를 위해서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3.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 3시(사무실에 신청 바람)
  4. 예비자 교리는 2월부터 시작합니다
  5. 수녀원 신축현금 내주신 분  
정보나(2만원), 이마리아(20만원)
- 지난주 봉헌금: 118,435원 어린이헌금: 2,020원  
교무금: 119,000원